

이슈브리프

No. 2026-08

2026년 이란 반(反)체제 시위 이후 이슬람 공화국의 향방과 미국의 계산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이태희

연구원

2026-02-03

2025년 12월 말 테헤란 전통시장에서 촉발된 민생고 시위는 31개 주 전역으로 확산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이 결집한 반체제 시위로 빠르게 발전했다. 이로 인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수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슬람 법학자인 올라마(Ulama)와 혁명수비대를 축으로 한 강경파 지배연합은 이미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의 참담한 패배와 자국민 보호 실패로 시아파 맹주로서의 위상과 체제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후에도 지배연합은 핵·미사일 재무장을 선언했고, 같은 해 9월 유엔 제재 복원으로 리알화 폭락과 물가 폭등이 겹치며 민생 위기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시위대는 '이슬람 공화국에 몰락을', '샤(Shah, 과거 이란 국왕)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체제 자체를 전례 없이 정면 부정했고 강경파 엘리트는 대규모 유혈 진압과 인터넷·국제전화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시위 발발 약 3주 만인 2026년 1월 중순, 시위대 사망자 수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체제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현재 이란은 표면적으로 체제 안정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집권 엘리트 내부에서는 결속

약화와 동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자국민 학살에 준하는 폭력이 자행된 후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 체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정권 엘리트층으로 퍼지면서, 성직자 집단의 분열과 혁명수비대의 파벌화 등 권력층이 이반되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특유의 억압과 불신 구조 속에서 이러한 균열은 은폐되고 엘리트와 반대 세력 모두 결정적 순간까지 선택을 유보하겠지만, 누적되는 압력은 예기치 않은 계기로 언제든 임계점에 도달해 급격한 전환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정부가 평화 시위대 살해를 이유로 하메네이와 지배연합을 정조준한 군사 대응을 공언한 후 항모전단을 전개하는 한편,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핵개발과 반미 이슬람혁명 이념을 체제 존립의 근간으로 여기는 강경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수뇌부와 안보 자산을 겨냥한 단기 정밀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비난과 제재 여론 확산, 이란 엘리트 내부 균열과 '저항의 축' 약화, 베네수엘라 개입에서 보인 성과, 이란산 석유의 대중국 유입 차단 필요성, 러시아·중국의 대응 부재, 그리고 중동 안보 질서의 근본적 재편 기회 부상 등은 이러한 군사 대응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은 이란 핵심층에 대한 타격이 정권 엘리트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반체제 시위의 재점화를 촉발해 과도기적 정치 국면과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 국면에서 이란 온건파 외교라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미국이 즉각적 타격을 유보한 채 압박을 관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란 체제 핵심층이 강경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2026년 1월, 전례 없는 이란 반체제 시위의 확산

2025년 1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전통시장 바자르(Bazaar)에서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상인들은 환율이 시간 단위로 폭등해 상품 가격을 매길 수도 없게 되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며 가게 문을 닫았다. SNS에 퍼진 현장 영상에는 진압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상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바자르 상인들의 산발적 항의에 그쳤던 시위는 점차 전국 단위로 발전했고, 시위대 구성원도 다양해졌으며 시위 구호 역시 경제 불만을 넘어 체제 반대와 직접적인 정권 퇴진 요구로 전환됐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는 일람(Ilam)과 차하르마할(Chaharmahal) 등 지방의 소도시로 번진 뒤 마슈하드(Mashhad)를 포함한 대도시로 옮겨갔고 첫 시위 발생 2주 만에 전국 31개 주 186여 개의 도시로 확산했다.¹

특히 바자르 상인층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을 주도한 대표 세력이자,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위는 현 지배연합에 가볍지 않은 위협이다. 나아가 일람과 차하르마할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방 도시이고, 마슈하드는 강경 보수파 지배층의 핵심 거점이자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고향이기도 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방의 사회경제적 하층민이 초기 시위에 동조한 데 이어 대학생과 여성, 중산층, 중장년층까지 참여 계층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이 반체제 요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들 시위대는 '독재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슬람 공화국에 몰락을', '팔레비(Pahlavi)여 영원하라', '샤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SNS에서는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로 쓰는 이란 여성들의 영상이 퍼지면서 지배연합은 물론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가 정조준되고 있다.²

이처럼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됐던 팔레비 왕조의 귀환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시위는 지난 10여 년간 일어난 민생고 시위와 뚜렷이 구별된다. 과거 시위에서도 당국을 향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은 있었지만, 시위대 다수가 정책 개선이나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경우는 드물었다. 더욱이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래비(Reza Pahlavi)가 2026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이란 강권기구의 시위대 폭력 진압 자체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행동 촉구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더 많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이번 반체제 시위가 체제 전환을 상정할 수 있는 상징적 대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전례 없는 모습을 띠었다.³

최초 바자르 상인 시위가 일어난 직후 이란 당국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Basij) 민병대, 경찰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1월 3일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발포 명령을 내렸다. 4일에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매달 생활비 7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유화책을 급히 내놨으나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해 8일 인터넷과 국제 전화선을 전국적으로 전면 차단하면서 더욱 무자비한 진압을 예고했다. 이어 이란 당국은 저격수까지 동원해 시위대의 머리와 가슴을 조준 사격하는 등 초강경 진압에 나섰고, 군용 장비를 이용한 스타링크 교란으로 정보 유입을 차단해 테헤란 주재 외국 대사관들조차 본국과의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⁴ 결국 16일경부터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17일 국영방송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상인의 항의는 정당하다"면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에 고용된 세력이 시위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⁵ 시위 발발 4주째로 접어든 20일 기준, 시위대 사망자 수는 6천 명에서 최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체포자 수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⁶

한편,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 진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트루스소셜에 "평화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그들을 구출하려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고, 12일에는 시위대 살해를 '레드 라인' 위반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옵션을 암시하는 '강력한 선택지(strong options)'를 거론했다.⁷ 15일에는 미국 유엔대사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고 발언하기도 했다.⁸

이번 반체제 시위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 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고, 1989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하메네이 체제 또한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시위는 일시적인 분노의 분출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요구와는 괴리된, 무능하고 부패한 체제를 향한 사회 전반의 탈진과 체념이 결합해 나타났다. 대대적인 체제 전복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 이번 시위는 2022년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불잡혀 의문사한 후 일어났던 규탄 시위보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평가된다.⁹

표 1. 2025~2026년 반체제 시위와 2022년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 비교¹⁰

구분	2025~2026년 반체제 시위	2022년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
기간	2025년 12월~2026년 1월	2022년 9~12월
촉발 계기	화폐가치 폭락, 물가 급등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민생고 시위	부적절한 히잡 착용 혐의로 체포된 쿠르드계 마흐사 아미니의 구금 중 사망
인명 피해	6,000~30,000명 사망, 40,000명 이상 체포	500명 이상 사망, 14,000명 이상 체포
시위 발화 지점	테헤란 전통시장	아미니의 고향인 북서부 도시 사케즈(Saqqez)
주요 참여 계층	전통시장 상인, 중산층, 청년, 대학생, 여성, 노동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	여성, 청년, 대학생, 쿠르드계
주요 구호 및 성격	'독재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슬람 공화국에 몰락을', '팔레비여 영원하라', '샤 만세' 등 반체제 성격 뚜렷	'여성, 생명, 자유' 등 인권과 존엄 강조
진압 방식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전격 투입 및 경찰은 보조 역할	경찰과 바시즈 민병대 투입 및 혁명수비대는 부분 개입
정보 통제	전국 단위 인터넷과 국제전화 전면 차단	모바일 데이터 부분 차단과 SNS 접속 제한

이란 대규모 반체제 시위 확산의 원인과 배경

1. 2025년 '12일 전쟁' 이후 정권의 정당성 추락

하메네이 체제의 불안정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란이 12일 만에 무기력하게 대패한 이후 누적됐다.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최첨단 기술로 정보·사이버·공중전을 결합해 이란 방공망과 핵시설,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다. 여기에 미국이 벙커버스터와 스텔스기 전력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핵시설 타격을 결정하면서 전쟁에 전격 개입했고, 역내 패권국을 자임해 온 이란은 단숨에 무력화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부분 예견돼 있었다. 이미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시스템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였다. 또한 전쟁 이전 이뤄진 이스라엘의 연쇄 작전으로 하마스(Hamas), 헤즈볼라(Hizballah), 후티(Houthi) 반군 등 이란 대리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이 심각하게 약화했고,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 세습 정권도 갑작스레 붕괴했다.¹¹

아울러 이란 당국은 전쟁 시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하며 민심을 크게 잃었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와 최측근 20여 명이 사망하자, 하메네이는 비밀 병커에 은신한 채 극소수의 측근들과만 소통하며 3주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 시민에게 대피를 경고했음에도 이란 정부는 방공 사이렌 발령이나 대피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국은 내부 정보 유출과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인터넷을 전면 차단해 시민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정보 획득 통로마저 봉쇄했다.¹² 시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 정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된 직후 이란 당국은 간첩 혐의로 2만 1,000여 명을 체포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심각한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속에서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개를 선언했다. 이란이 만성적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행정, 공적 신뢰와 집권 정당성 붕괴, 경직된 외교 노선을 바로잡지 않은 채 군사 재무장에 착수하자,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¹³

2. 유엔 제재 복원 이후 최악의 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

2025년 9월 이란의 핵 합의 위반에 따른 유엔 제재까지 복원되면서 이란 경제에 가해진 충격은 점차 누적됐고, 12월 말에는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다. 12월 28일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약 140만 리알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불과 6개월 만에 약 절반으로 하락한 수치다.¹⁴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및 유럽연합 대표가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타결했을 당시 달러당 환율이 약 3만 2,000리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화폐가치가 약 40분의 1 수준으로 붕괴한 셈이다. 공식 인플레이션율도 40%를 넘어서면서 생필품 가격은 가계 대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식량 부족과 생계 불안에 내몰렸다.¹⁵

그럼에도 12월 23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긴축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세금과 연료·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됐지만 임금 인상률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에너지 보조금과 우대 환율, 필수 의약품 보험 보장 등 간접 지원도 축소됐다. 12월 29일 환율 급등과 통화 불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Mohammad Reza Farzin)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진정되지 않았고 시위는 더 확산했다. 2026년 1월 4일 궁지에 몰린 이란 당국은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전 국민 8,600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4개월간 매달 7달러의 '생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¹⁶ 이어 이란 의회는 임금 인상률을 기준 20%에서 43%로 올리고 부가가치세 인하 폭을 10%에서 12%로 늘리는 한편, 생필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 약 88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황급히 밝혔다.¹⁷ 그러나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체제 불신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향방과 미국의 전방위 압박 및 이스라엘의 공조

1. 이란 집권 엘리트의 결속력 약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극적 몰락 가능성

이번 반체제 시위가 체제 친화적인 바자르 상인의 파업을 계기로 확산했다는 점은 현 지배연합의 지지 기반 약화를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다. 바자르 상인층은 상업 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촘촘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중하층 공동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에서도 바자르 네트워크는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적 연대와 결합해 초기 반(反)샤 시위를 동원하고 전국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강경파 지배연합이 유혈 진압과 대규모 체포, 통신 차단과 대학 폐쇄 등 전형적인 억압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이번 시위는 급격한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¹⁸ 또한 1979년 반샤 시위와 달리 이번 시위에는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처럼 이질적인 사회 집단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나 통합적 지도자가 없었다. 팔레비 왕의 장남이 신정 체제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선택지로 부상하고는 있으나, 그의 국내 지지 기반은 아직 결정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반체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자국민 학살에 준하는 폭력이 자행되면서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의식은 정권 엘리트층 내부로까지 퍼지고 있다.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하메네이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조직과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번지고 결속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메네이와 최측근이 이번 유혈 진압 과정에서 혁명수비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인 알하시드 알샤비(Al-Hassd Al-Shaabi)까지 동원한 점은 강권 기구 내부에 균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¹⁹

이에 더해 개혁 성향 성직자와 지식인 그룹이 공개적으로 ‘폭력 진압 규탄’을 선언하고, 정권 엘리트 일부가 왕정주의자와 반체제 망명 세력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마저 거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권력층 이반의 징후가 포착됐다. 또한 시위가 통제 불능의 속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가족과 측근을 대동해 해외 도피를 검토하고 자산 확보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자, 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 권력 경쟁이 두드러지며 성직자 그룹의 내분과 혁명수비대의 파벌화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²⁰ 이렇듯 반체제 시위의 분출과 확산 이후 집권 엘리트 사이에서는 체제 생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했고, 이에 따라 지배층의 결속력이 약화한 것으로 관찰된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의 정권 엘리트와 일반 시민은 체제의 생존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주변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2021년 탈레반(Taliban)의 재집권, 2024년 시리아 아사드(Assad) 정권의 몰락에서 보듯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눌려온 불만은 극적으로 분출돼 체제의 균형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붕괴시켰다. 집권 엘리트와 반대 세력 모두 결정적 순간까지 불안한 계산 속에서 선택을 유보했기 때문이다.²¹

지금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체제 안정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불안한 균형의 이면에는 이탈과 동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독재 체제의 특성상 억압과 감시 기제가 정치적 균열을 일시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나, 정보 차단과 상호 불신의 구조 속에서 축적된 사회적 압력은 언제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반체제 시위가 다시 불붙으면서 정권 엘리트의 연쇄적 이탈로 이어지는 전환 국면을 촉발할 수 있다.

2. 미국의 대이란 정밀 타격 옵션과 이스라엘의 공조: 이란 엘리트의 이탈 가속화 시나리오

미국의 대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세력 지원 중단 요구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평화 시위대 살해로 인한 대이란 군사 대응을 공언한 후 역내 긴장은 빠르게 고조됐다. 13일에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즉각적인 이란 출국을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대이란 압박을 강화했다.²² 14일 미 국방부는 카타르 주둔 미군 및 미국인에 대한 안전 경보를 강화했고, 유럽 주요국은 주이란 공관 운영 축소와 자국민 철수 권고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15일 이란은 일부 영공을 폐쇄하고 방공 태세를 강화해 역내 군사 충돌 가능성을 촉발시켰다.²³

그런데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시위대 처형 800건 중단 결정과 미군 전력의 여건 등을 이유로 대이란 공격을 유보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²⁴ 그럼에도 이튿날 바로 미 항공모함 전단의 중동 이동을 명령하며 이란을 향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²⁵ 26일 미 중부사령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미사일 장착 호위 구축함 3척의 중동 전개를 확인했고, 28일에는 추가 공군 전력 배치, 항공훈련 실시, 방공체계 강화와 함께 해군 전력의 추가 투입도 예고했다.²⁶ 이에 이란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비상명령을 발동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함대”라면서도 “이란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밝혀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겼다.²⁷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조건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역내 친이란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미·반イス라엘 이슬람혁명 사상을 역내에 수출하기 위해 핵개발도 불사해 온 이란 강경파 지배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하메네이는 최근 수년간 핵 프로그램을 주권 문제로 규정해 우라늄 농축 포기는 국익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혀왔다. 온건 성향의 이란 외교관들은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분투해 왔음에도 최고 종교 지도자는 체제 수호 의지를 결연히 강조하며 강경 노선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이란 단기 정밀 군사 행동에 유리한 환경 조성

만약 이란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란 핵심 수뇌부와 안보 자산을 정밀 타격하는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핵·미사일 재무장이 레드 라인에 접근했다는 인식 아래 예방 차원의 단기 군사 타격을 검토해 왔기에 미국과 공조할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2025년 12월 29일 플로리다주 마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란이 핵과 미사일 재무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에

동참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받아냈다.²⁸

최근 국제 여론과 정세 변화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정당화할 조건을 형성해 왔다. 이란 당국이 반체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저격수와 기관단총까지 동원해 살상극을 벌이자, 유럽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책임 규명과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²⁹ 2026년 1월 29일에는 유럽연합이 시위대 유혈 진압에 앞장선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란 정권 엘리트 내부에서 체제 수호에 대한 회의와 이탈이 감지되고, 2025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군사 인프라와 '저항의 축'이 크게 약화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는 1월 3일 베네수엘라 개입 성과를 계기로 마크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주도의 개입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Maduro) 체포 이후 중동의 반미 산유국인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상하고 있다.³⁰ 마두로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중국·러시아·이란 등 반미 국가와 연대를 다졌고, 특히 중국은 2025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약 80%를 차지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에너지 주도권 확보가 핵심이라고 본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선점해야만 우방국이 반미 진영에 의존하는 구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³¹ 따라서 이란의 풍부한 석유가 제재를 우회하여 중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현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반미 노선과 핵개발을 고수해 온 시아파 맹주인 이란 수뇌부에 정밀 군사 작전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경우 역내 권력 구도와 안보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양축으로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현실화하고,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어느 미국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외교·안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12일 전쟁' 당시 이란이 의존해 온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저지하지 못했고, 전후 이란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았을 때조차 러시아와 중국이 외교·재정적 지원에 나서지 않은 점은 이란의 취약한 외부 조력 기반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러시아·중국제 다층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례는 유사한 체계를 운용 중인 이란 역시 중·러 연대로 안보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미국의 군사 행동은 전면전과 장기 재건 부담을 요하는 정권 교체나 직접 개입 형식을 따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각각 탈레반 정권과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지만, 이후 약 20년간 두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군사·재정적 비용을 치렀을 뿐 아니라 참전 병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했다. 나아가 축출됐던 탈레반이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 개입의 성과 자체가 부정됐다. 이라크 역시 전후 안정화와 재건에 실패하면서 종파주의가 급속히 확산했고, 그 결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IS의 등장에 토대를 제공했다.

이스라엘도 중동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초래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월 10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인터뷰에서 “이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혁명은 내부에서 일어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³²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6월 이란을 무력화하고 압승한 ‘12일 전쟁’ 과정에서도 이란의 정권 교체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이란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³³ 이는 예측 가능한 기준의 적이 불확실한 권력 공백보다 덜 위험하다는 판단과 이스라엘의 개입이 이란 강경파에게 명분을 제공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전방위 군사 압박 국면에서 이란 온건파 외교라인의 극적인 노력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여 단기적으로 미국의 타격이 유보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군사 옵션이 배제됐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메네이와 최측근 엘리트가 이슬람

공화국의 국시이자 체제 존립의 근간인 대미 강경 노선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행동 자체 요청,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유럽 갈등에 따른 동맹 내 균열에도 불구하고 우방국과의 정치적·전략적 조율을 통해 대이란 개입 성과를 이뤄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이스라엘과의 공조하에 정밀 군사 작전으로 이란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체제의 향방을 좌우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경파 핵심층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경우 정권 엘리트 내부 이탈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균열이 다시 점화된 반체제 시위와 맞물려 강권기구의 통제력이 무너질 경우 이란은 과도기적 정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온건파 관료나 체제 개혁파 지도자 주도의 임시 정부가 치안과 행정 안정을 관리하며 체제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레자 팔레비가 핵 포기와 세속적 민주주의 이행을 내세워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고려될 수 있다.

저자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이자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주의와 독재,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중동정치를 비교분석한 «최소한의 중동 수업» (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논문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정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망” (아산이슈브리프 2022),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아산리포트 2018),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 (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¹ Jon Gambrell, "Protests Erupt in Iran Over Currency's Plunge to Record Low," *AP News*, December 30, 2025;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HRANA), "Day Fifteen of Iran's Nationwide Protests: Sharp Rise in Human Casualties,"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January 11, 2026.

² "Protest Creativity: Iranian Women Light Cigarettes on Burning Portrait of the Ayatollah," *Euronews*, January 10, 2026.

³ Jon Gambrell, "Iran's Exiled Crown Prince Rises as a Figure in Protests, Decades After Leaving His Homeland," *AP News*, January 10, 2026; Melanie Lidman, "Exiled Crown Prince's Plan for Iran Is Mostly Aimed at Trump, Experts Say," *AP news*, January 16, 2026.

⁴ "Iran: Deaths and Injuries Increase During Renewed Protest Re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UK*, January 9, 2026; "How Iran's Regime Has Hidden Its Brutal Crackdown: It Has Cut Off Communication, but Outsiders Might Help Iranians Get Back Online," *The Economist*, January 12, 2026; Kay Armin Serjoie, Roxana Saberi, and Fatemeh Jamalpour, "Iran Protest Death Toll Could Top 30,000, According to Local Health Officials," *TIME*, January 25, 2026.

⁵ "Iran's leader Khamenei accuses Trump of inciting deadly protests," *Reuters*, January 18, 2026.

⁶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HRANA), "Day Twenty-Three of the Protests: Internet Blackout, Media Clampdown, and Cancellation of Davos Invitation,"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 January 19, 2026; Tucker Reals, Elizabeth Palmer, Ramy Inocencio, and Joanne Stocker, "Over 12,000 Feared Dead After Iran Protests, as Video Shows Bodies Lined Up at Morgue," *CBS News*, January 13, 2026.

⁷ Parisa Hafezi, "New Trump Warning as Iran Cuts Internet with Protests Across Country," *Reuters*, January 10, 2026.

⁸ William Christou, Deepa Parent, and Lorenzo Tondo, "Iran Warns US Against Attack as Protest Death Toll Reportedly Soars," *The Guardian*, January 11, 2026; Michelle Nichols, "US Tells UN All Options on Table, Iran Warns It Will Respond to Any Aggression," *Reuters*, January 16, 2026.

⁹ Saeid Golkar and Jason M. Brodsky, "What's New About This Wave of Protests in Iran," *Foreign Policy*, January 5, 2026.

¹⁰ Jon Gambrell, "Activists Say Iranian Forces Shot at Protesters, Killing 2," *AP News*, October 29, 2022; "Twenty Questions (and Expert Answers) About Iran One Year After Mahsa Amini's Death," *Atlantic Council*, September 13, 2023; Parisa Hafezi, "Iran Rounds Up Thousands in Mass Arrest Campaign After Crushing Unrest, Sources Say," *Reuters*, January 29, 2026.

¹¹ 장지향,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아산 이슈브리프, 2025-31.

¹² "Iran Says It Arrested 21,000 'Suspects' During 12-Day War With Israel," *Reuters*, August 12, 2025; Daniel Brumberg, "Political Divisions in Iran and the Uncertain Path to a New Nuclear Deal," *Policy Analysis of Arab Center Washington DC*, September 4, 2025; Eric Lob, Diba Mirzaei, and Hamid Talebian, "Iran in the Aftermath of the Twelve-Day War,"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Focus Middle East*, no. 5, 2025; Max Walden, "People in Iran Trying to Flee Israeli Bombs Face Internet Blackout, Ordered to Delete WhatsApp," *ABC News*, June 19, 2025.

-
- ¹³ Maayan Lubell and Jana Choukeir, "Israel Will Strike Iran Again if Threatened, Defence Minister Says," *Reuters*, July 11, 2025.
- ¹⁴ "Protests Erupt in Iran Over Currency's Plunge to Record Low," *AP News*, December 30, 2025.
- ¹⁵ Arsalan Shahla, "How Iran Sanctions and a Currency Crash Triggered Mass Protests," *Bloomberg*, January 13, 2026.
- ¹⁶ Erika Solomon and Sanam Mahoozi, "Iran Offers Citizens \$7 a Month in a Bid to Cool Protests," *The New York Times*, January 5, 2026.
- ¹⁷ Patrick Wintour, "Iran to Try Risky Economic Concessions as It Attempts to Quell Protesters' Anger," *The Guardian*, January 6, 2026.
- ¹⁸ Jon Gambrell, "As Protests Rage, Iran Pulls the Plug on Contact with the World," *AP News*, January 11, 2026.
- ¹⁹ "After Iran's Massacres, Tensions Grow Inside the Regime," *The Economist*, January 19, 2026.
- ²⁰ "Ayatollah Khamenei Plans to Flee to Moscow if Iran Unrest Intensifies, Intelligence Report Reveals," *The Times*, January 4, 2026; Dan Perry, "Iran's Military Might Break with the Regime," *The Hill*, January 9, 2026.
- ²¹ 장지향, 『최소한의 중동 수업』, 서울: 시공사, 2023.
- ²² David Brennan and Meredith Deliso, "Trump Announces 25% Tariff on Any Country Doing Business with Iran; State Department Warns Americans to 'Leave Iran Now,'" *ABC News*, January 13, 2026.
- ²³ Konstantin Toropin and Farnoush Amiri, "Some Personnel at Key US Base in Qatar Advised to Evacuate Amid Iran Tensions," *ABC News*, January 14, 2026; William Christou, "US and UK Military Withdraw Some Personnel from Middle East Amid Iranian Threats," *The Guardian*, January 14, 2026; "Iran Closes Its Airspace Without Explanation," *AP News*, January 15, 2026.
- ²⁴ Warren P. Strobel, John Hudson, Isaac Arnsdorf, Susannah George, Mohamad El Chamaa, and Tara Copp, "In Iran Crisis, Trump Confronted Limits of U.S. Military Power,"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7, 2026.
- ²⁵ Alexandra Sharp, "Will Iran Execute Protesters Despite U.S. Intervention Threats?," *Foreign Policy*, January 14, 2026; Ellen Mitchell, "Pentagon Moving Carrier Strike Group Toward Middle East Amid Tensions With Iran," *The Hill*, January 15, 2026.
- ²⁶ Andrew Roth, "US Announces Multi-Day Aerial Military Drills in the Middle East amid Iran Tensions," *The Guardian*, January 27, 2026; Seda Sevencan, "US Expands Military Presence in Middle East amid Standoff with Iran: Reports," *Anadolu Ajansi*, January 28, 2026; Konstantin Toropin, "US Aircraft Carrier Arrives in the Middle East as Tensions with Iran Remain High," *AP news*, January 27, 2026.
- ²⁷ Maziar Motamedi, "As US 'Armada' Approaches, Iran Warns of Dire Consequences if Attacked," *A/Jazeera*, January 26, 2026; Barak Ravid, "Exclusive: Trump Says Iran Wants a Deal as U.S. 'Armada' Arrives," *Axios*, January 26, 2026.
- ²⁸ Andrea Shalal, Maayan Lubell, and Gram Slattery, "Trump Warns Iran of Possible Strike, Urges Hamas to Disarm After Meeting Netanyahu," *Reuters*, December 30, 2025.
- ²⁹ "EU to 'Swiftly' Propose Further Sanctions on Iran, von der Leyen Says," *Reuters*, January 13, 2026; "Joint G7 Foreign Ministers' Statement,"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January 14, 2026.

³⁰ Joze Pelayo, Kirsten Fontenrose, and Ellie Sennett, "The Venezuela-Iran Connection and What Maduro's Capture Means for Tehran, Explained," *Atlantic Council MENA Source*, January 12, 2026.

³¹ Ron Bousso, "Win or Lose, Trump's Fossil Fuel Gamble Crowns China the Clean-Energy King," *Reuters*, January 14, 2026.

³² "Binyamin Netanyahu's Plan to Win Israeli—and Global—Hearts and Minds," *The Economist*, January 9, 2026.

³³ Howard Goller, "Netanyahu Says Fall of Iran's Leadership Not a Goal but Could Be a Result," *Reuters*, June 20, 2025.